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3일 월요일 음 6월 21일 (1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5/34℃
모레	맑음	25/33℃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7℃, 낮 최고기온은 33~34℃로 예상된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5:47 해짐 19:33		달뜸 21:56 달짐 10:00
물때	만조 01:12 13:22		간조 07:54 19:56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트럼프, '주말 대이란 군사작전' 일단 보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1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동의했으니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신속히 합의한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했다"며 이스라엘도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라며 군사 위협 카드는 내려놓지 않았다. 공습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대이란 공격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으로 다시 충돌해 왔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진 선 희
교육문화체육부국장

그 노래들 잊히지 않고 살아남을까

2019년 2월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오는 10월 19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치는 5개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때문이다. 공연일까지 남은 기간이 두 달 보름 남짓인데도 제주도는 그 형식과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제주 브랜드 대표공연 개발 및 상연'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연출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도립예술단의 공연 개발 착수 소식을 알리면서 2026년 상반기 하이라이트 공연에 이어 그해 10월 작품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지만 이미 절반은 어그러졌다.

제주도가 도립예술단의 힘을 모아 제주를 대표할 창작 공연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 공연 예술 대표작을 내놓겠다는 문화행정의 의지와 별개로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도립예술단 활성화 용역에서는 각 예술단 간 합동공연 기획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발전 과제 중 하나로 '통합사무국 설치를 통한 총괄 운영·지원'을 꼽은 적이 있다. 반면 용역진은 통합사무국 설치 시 예술단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방식의 일반화와 단일화, 통합에 의한 구성원들의 불안감 조성 등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제시하며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는 걸 드러냈다. 실제 당시 도립예술단 활성화 용역 추진 과정에 통합안을 두고 예술단 일각의 반감을 샀다.

이런 현실에서 그간 기존 작품을 재해석해 무대에 올렸던 합동공연이 왜 단발에 그쳤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5개 도립예술단이 돌아가며 합동공연을 주관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더욱이 올해는 제주 신화 속 여신을 모티프로 한 외부 용역 창작물을 소화해야 한다.

지자체 주도로 제주의 브랜드를 꿈꾼 공연은 전에도 있었다. 제주시가 공연 제작사와 손을 잡아 2018년 제주에서 초연한 창작 뮤지컬 '만덕'. 이 작품은 '매진' '호평' 등으로 홍보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듬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특별 공연에 나서며 수도권 역진출까지 바랐지만 지금은 어떤가. 제주교향악단·합창단 등이 참여했던 창작 오페라 '백록담'도 있다. 2002년 12월 초연 이래 몇 차례 공연했고 콘서트 오페라 등으로 명맥을 이었으나 이 역시 근래엔 상연되지 않는다. 두 작품 모두 극본, 음악 등 유명 창작자들이 합류하고 출연진에도 이름난 이들이 있었지만 관객들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기 이전부터 '브랜드 공연 개발'을 내세웠다. 각 예술단들은 저마다 계획한 정기 공연을 치르며 10월 무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문예회관에 퍼질 노래들이 잊히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열린마당

폭염 속 제주, '안전'이라는 가장 시원한 휴식

고 정 국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장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손짓하는 계절, 여름이다.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휴양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센터장으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여름철 제주는 폭염과 습도, 늘어나는 피서객과 야외활동자 등으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

첫째,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이다. 기록적인 폭염은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야외작업자, 피서객을 중심으로 열탈진과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소방에서는 응급 장비를 갖춘 폭염 대응 구급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백신은 예방이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이다. 냉방기기의 과열과 높은 습도로 인한 누전이나 단락은 화재의 주원인이다. 실외기 주변 먼지를 청소하고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거나 잠그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화재와 온열질환 예방은 일상 속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우리 119 대원들은 오늘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올여름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계절을 보내길 기원한다.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서귀포'를 꿈꾸며

김 지 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2026년 7월 한 달간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탄소중립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 전공인 지리학에서 '기후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공부하며 쌓은 이론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싶어 지원했다.

주요 업무는 상업시설을 방문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무더위 속에서 관내 상가를 도보로 누비는 일은 쉽지 않았다. 피크타임과 브레이크타임을 피해 방문해야 했고,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거나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장님들을 만나 난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은 배움의 연속이었다. "평소에도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진작 가입시켜 주지 그랬냐", "이렇게라도 환경을 보호해야지"라며 반겨주신 분들 덕분에 한 달간 90여 건의 가입 결실을 맺었다. 무더운 날 건네주신 음료 한 잔에는 행정이 시민에게 전달될 때의 보람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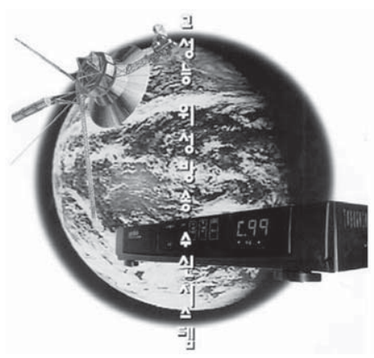
동시에 현장 유인물의 한계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 등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홍보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실천을 이끌 의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경험은 대학 생활의 전환점이 됐다. 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더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한다.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기후환경과에 감사드린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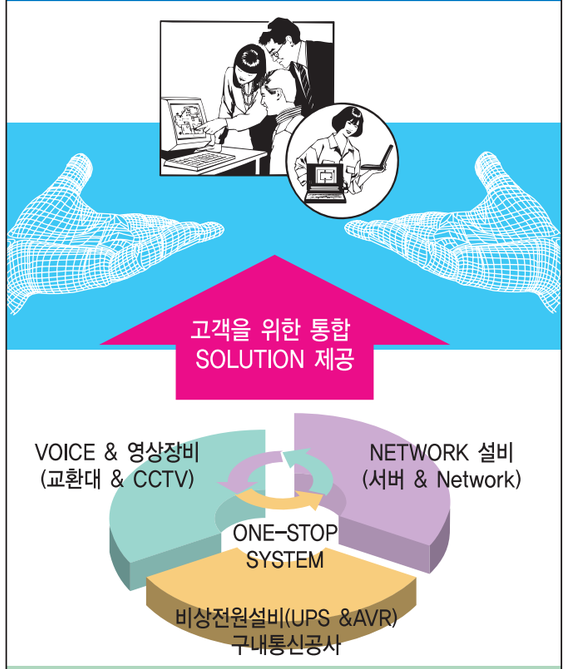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